

# 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4.06.19, 한-EU연구협력센터>

- 유럽사이버보안경쟁력센터(ECCC), 호라이즌 유럽 그랜트 관리 착수(6.13)
  - 센터는 연구개발 및 배포에 대한 투자를 통합하고 단일 유럽 생태계를 조성하여 유럽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호라이즌 유럽 및 디지털유럽 프로그램 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출범
  - 사이버보안 연구는 HE 클러스터3(시민안보) 예산 중 1/3을 차지, '24년 예산은 6천만 유로에 달함
- 집행위 연구혁신총국(DG RTD), 공동정책센터 신임 국장 선임(6.13)
  - DG RTD의 공동정책센터, 즉, 공동정책국(Directorate G)은 연구, 과학 및 혁신에 관한 EU 정책을 담당, 연구 정책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분석
  - 새로운 국장으로는 지난 20년간 집행위원회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아 온 프랑스 출신의 Pualine Rouch가 선임됨
  - 이 외 올해 초 DG RTD의 'Prosperity(산업/기술사업화, Directorate E)' 담당 국장 Dröll이 은퇴함에 따라 Russo 국제협력국장이 Dröll의 자리를 물려받음
  - 또한, 지난해 집행위는 생성형 AI가 과학에 가져올 혁명에 대응하여 'Directorate E' 내부에 새로운 부서인 'E4: Industry 5.0 and AI in science'의 창설을 발표한 바 있음

※ 참고자료: DG RTD 조직도
- 집행위, 기후 변화 적응을 돕기 위한 Destination Earth 시스템 출시(6.10)
  - 집행위는 매우 정확한 지구의 디지털 트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주력 이니셔티브로 초기 DestinE 시스템을 핀란드에서 활성화
  - DestinE 시스템의 배포는 핀란드 Kajaani의 LUMI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유럽초고성능컴퓨터(EuroHPC)가 기후 변화와 기상 이변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임무를 맡게 됨을 의미
  - 동 이니셔티브는 주요 자연재해 대응, 기후 변화 적응, 이러한 사건의 잠재적인 사회경제적, 정책적 영향을 평가하고 더 잘 대비하도록 지원
  - 이어 6월 13일 집행위원회는 '디지털 해양 포럼(DOF) 2024'에서 첫 번째 EU 디지털트윈 오션(EU DTO) 사전 [운영 플랫폼을 공개](#)
- (기타) ▲독일 연구 조직,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 보이콧 비판 ... 스페인, 벨기에, 이탈리아 대학, 이스라엘과의 관계 단절 움직임(6.13) ▲유럽 최초의 산업 규모 양자 프로세서 제조 시설, 프랑스에 설립 예정(6.11) ▲EU 이사회, 생태계 복원 의무화하는 '자연복원법' 최종 승인(6.17) ▲유럽의회, '호라이즌 유럽: 학문의 자유 보호'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(6.13) ▲집행위, EU 시민과학상 2024 수상자 발표(6.12)